

영국서점, 아날로그식 큐레이션의 힘

글 서은영 서울경제신문 기자(supia927@sedaily.com)



꼭 7년 전이다. 전자책의 등장으로 종이책은 5년 내 운명을 다할 것이라는 도발적인 예언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종이책은 여전히 건재하다. 멸종은커녕 전 세계적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최근 들어 전자책 판매가 17~18%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종이책 매출은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종이책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2~3년간 이어지고 있는 책맥(맥주를 마시며 책을 읽는 것) 트렌드는 시작에 불과했다. 책을 읽으며 쉬는 '복스테이'가 등장했고, 독립서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독서 모임, 취미 모임 등이 생겨났다. 수요가 생기면 공급도 풍요로워진다. 취향을 파고드는 독립 출판물들이 늘고 독자들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종이책이 다양한 문화현상과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독자 이상의 새로운 문화 활동으로 진화하면서 벌어진 일들이다.



1797년 문을 연 서점 '해처즈' 해처즈의 시선이 담긴 '아날로그식 큐레이션'에 대한 런던 독서인들의 신뢰는 매우 높다.



출판업계 사람들의 표현을 빌면 독서인구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읽는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많이 읽는다. 이들에게 최근의 독서 환경은 더할 나위 없다. 전자책과 종이책을 오가며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됐고, 서점을 통해 손쉽게 취향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뚜렷한 개성과 스타일을 갖춘 출판사들이 늘어나며 책의 다양성도 더할 나위 없다. 쉽게 구할 수 없었던 외서들이 발 빠르게 번역 출간되고,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한정판 책이나 굿즈(Goods), 표지 디자인을 리뉴얼한 책들이 쏟아진다.

아날로그 감성으로 무장한 英 서점들

책이 낡설었던 이들에게도 종이책의 가치를 재발견할 기회는 충분하다. 개성과 지역성을 겸비한 작은 서점들이 늘어나면 서부터다. 지난 6월 서점의 부흥을 취재하기 위해 찾은 영국 런던은 새로운 서점의 등장이 가장 빨리, 활발하게 나타났던 도시다. 이 도시 최고의 번화가로 꼽히는 피커딜리 거리에는 1797년 문을 연 서점 '해처즈'가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서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코너가 이곳에는 없다. 바로 획일의 상징인 베스트셀러 섹션이다. 대신 서점에서 엄선한 책을 손글씨로 쓴 설명과 함께 빼곡하게 꽂아둔 '해처즈의 서가가 존재한다. 서점을 찾는 이라면 반드시 살펴보고 간다는, 아니 서점의 방문목적 그 자체인 곳이 바로 해처즈의 서가다. 해처즈의 시선이 담긴 '아날로그식 큐레이션'에 대한 런던 독서인들의 신뢰는 그만큼 높다. 해처즈의 큐레이션을 굳이 아날로그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서가에 꽂힌 책들 사이로 빅데이터나 추천 알고리즘 등 디지털 첨단기술이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이다.

서점에 들어서면 좀 더 많은 책들이 독자들의 시선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한 해처즈의 전략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편일률적인 장르 구분과 도서분류법에 따른 일

영국의 여행 전문 서점 '돈트박스'



목요연한 정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 스탠딩 서재 사이로 원형 탁자를 놓아 마련한 소형 서가의 책 구분은 조금은 독특하다. 책 속의 구절을 적어 이와 유사한 느낌을 주는 책들을 모아놓거나 '흥망성쇠(rise and falls)' 섹션과 같이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인물이나 국가·기업 등의 흥망성쇠를 다룬 책들을 모은 코너, 영국과 잉글랜드, 런던 출신의 작가들만 모아놓은 섹션도 눈에 띄었다. 모든 코너 곳곳에는 저마다 다른 글씨체로 직원들이 손수 쓴 책에 대한 소개 글이 붙어 있다. 마치 서점에 들어선 순간부터 독자의 손을 이끌며 책의 재발견을 도와주는 듯하다. 이 같은 특색 있는 큐레이션은 독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책을 발견하도록 이끈다. 해처즈서점에 간다는 것은 '해처즈의 세계'에 접속하는 것이다.

해처즈 못지않게 독특한 매력으로 영국인들의 독서 문화를 고취시키는 곳이 여행 전문 서점 '돈트박스'다. 1990년 설립된 돈트복스는 첼시·홀랜드파크·햄프스테드 등 런던 내 6개 지점을 운영 중인데 특히 본점인 메릴본점은 목조 건물에 에드워드인 양식의 2층 서가가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겨 여행자들에게도 인기가 좋다. 영국의 대형서점들이 한 권을 사면 한 권을 얹어주는 이른바 '1+1(1 get 1 free)'의 공격적 마케팅을 앞세울 때도 돈트복스는 묵묵히 정가판매를 고집했다. 이 서점은 각 지역별로 섹션을 나누고 각종 여행책과 해



매주 금요일 작은 영화관으로 변신하는 작은 서점 '퇴근 후 책 한잔'(위), 이태원 해방촌의 문학 전문 작은 책방 '고요서사'(아래)



당 국가 작가가 쓴 수필·픽션은 물론 역사와 정치 관련 서적까지 두루 갖췄는데 그 다양성은 기대 이상이다. 코리아 섹션의 경우 한국과 북한의 주요 가이드북은 물론 Penguin에서 펴낸 홍길동전부터 황석영 작가의 '바리데기',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까지 다양한 책들이 소개돼 있었다.

돈트북스의 성공을 바탕으로 창업자인 제임스 돈트는 2011년 도산 위기에 빠졌던 영국 최대의 서점 체인 '워터스톤스'에 전문경영인으로 영입되며 또 한 번의 신화를 만들어냈다. 경기 불황과 온라인 서점의 공격적인 영업에 밀렸던 워터스톤스를 탈바꿈시킨 키워드도 '아날로그식 큐레이션'이었다. 손수 적은 추천 메모는 런던 독서인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종이책으로 귀환이 이어졌다.

20~30대 취향공동체의 아지트로 진화한 韓 서점

이 같은 변화는 국내에서도 감지된다. 요즘 국내 서점 업계에서는 "한 주에 하나 꼴로 서점이 생겨난다"는 말이 있다. 독립서점 내지 전문서점으로 분류되는 작은 서점들이 대형 서

점에서 제공하는 책 할인과 무료 배송, 화려한 디스플레이 이상의 가치로 독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것. 다시 말해 진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서 신규 고객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의 서점들은 주인장의 취향과 개성이 빛어낸 소우주로서 고객과 소통한다. 유희경 시인이 운영하는 시 전문 서점 '위트앤시니컬', 추리소설 전문 서점 '미스터리 유니온', 청소년 인문학 서적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부산의 인디고서원, 음악 전문서점 초원서점, 독립출판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어마인드 등은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겸비하고 관련 콘텐츠를 선별·추천하는 서점 주인이 그 자체로 매력 포인트다. 20년간 독서인구가 줄고 출판시장이 기운 사이 일반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마니아들이 즐길만한 깊이 있는 콘텐츠를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전문서점은 다르다. 특정 분야를 파고들면서 제공하는 정보의 깊이는 더욱 깊고 세밀해졌다. 궁극적으로 이들이 꿈꾸는 것은 고양이든, 음악이든 특정 테마로 사람이 모여들게 하는 플랫폼이다.

진화된 서점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상당수 작은 서점 창업자들은 스스로를 '기획자', '스타트업 창업자'라고 소개한다. 서점 진화의 힘은 아이디어와 기획력에 실행력까지 갖춘 젊은 창업자들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작된 셈이다. 노원의 동네서점 '5페이지' 김종원 대표가 "서점 경영자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샘솟는 기획자여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최근 두드러진 서점의 진화는 시장창조의 관점에서 '서점이 무엇을 팔 것인가' 대신 '고객이 무엇을 살 것인가'를 고민한 데서 나온 결과물이다.

필요가 발명을 낳듯 위기가 기회를 낳았다. 수년간 기울기만 했던 출판·서점 시장은 '책맹'에 빠진 독자들을 붙잡기 위해 다양한 기획을 내놓았고 이제 그 결실을 맺고 있다. 1인 출판사들이 협력해 독특한 시리즈물을 선보이기도 하고 책과 영화, 연극, 다양한 미디어와 결합하며 생명력을 키우고 있다. 독자들도 이에 화답한다. 아날로그로의 귀환이 아닌 아날로그의 진화가 낳은 종이책의 르네상스가 머지않았다. ①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현대카드 뮤직라이브러리

현대카드 뮤직라이브러리 사용설명서

글 한국콘텐츠진흥원 강하나 대리, 문하은 인턴

서울 한남동 한 편에 위치한 '현대카드 뮤직라이브러리.' 한남동의 하늘 풍경이 한 눈에 보이는 뽕 뚝린 공간과 건물 외벽에 자리 잡은 초대형 그래피티 작품이 눈길을 끈다. 작품 속에는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빼곡히 담겨 있다. 이곳은 음악에서 비롯한 울림을 일상의 영감으로 끌어올리는 공간이다.

1층 리셉션에서 본인 확인 후 신분증과 출입카드를 교환해야 2층으로 입장할 수 있다(현대카드 소지자 및 동반 2인 무료입장). 2층은 복층 구조로, 아래층에서는 다양한 바이닐(LP음반)을 들을 수 있고 위층은 책과 잡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한 면을 모두 차지하는 서가의 세로축은 음악을 5개의 장르(재즈, 소울, 록, 일렉트로닉, 힙합)로 구분하고, 가로축은 장르별 역사를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간의 흐름으로 읽을 수 있다.

현대카드 뮤직라이브러리는 원하는 바이닐을 감상할 수 있도록 9대의 턴테이블을 갖추고 있다. 밖에서는 한 번의 터치로 재생되는 디지털 음원을 통해 음악을 감상했다면 이곳에서는 수많은 바이닐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골라 그 목적인 무게감을 느끼며 직접 턴테이블을 조작해야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턴테이블 위에 바이닐을 얹고 헤드셋을 조정해 음악



한남동 뮤직 라이브러리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서적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원하는 바이닐을 감상할 수 있도록 9대의 턴테이블을 갖추고 있다.

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지지직거리는 소음까지도 하나의 감성으로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의 공간이다. 안타까웠던 것은 롤링스톤즈 매거진 전권과 다양한 음악 서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편하게 앉아 독서할 만한 공간이 충분치 않은 점이었다. 여유롭게 콘텐츠를 즐길 공간이 보완된다면 더욱 '뮤직라이브러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을까.